

“워커홀릭 20년...일과 사람의 소중함 깨닫다”

11년 동안 '런닝맨' 속 털털함 여전 '마녀식당...'선 차가운 캐릭터 소화 '생소한 역·OTT 환경 경험 좋았다'

이보다 더 털털할 수 없다. 배우 송지효(40·전수연)는 웃음을 터뜨릴 때 긴 머리 카락이 헝클어지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비대면 인터뷰, 참 어렵네요"라면서 머리를 긁적이는 모습도 그렇다. 11년간 출연해온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 속 솔직한 성격이 화면 너머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런 그가 실제와는 180도 다른 캐릭터로 시청자를 만났다. 13일 종영한 티빙 드라마 '마녀식당으로 오세요'의 마녀 희라이다. 희라는 희라가 고객에게 대가가 담긴 소원을 펼면서 벌어지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담았다. 표정의 변화 하나 없이 차가운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송지효는 "마음에 숨긴 짜증과 화를 그려모아 한껏 부각했다"며 웃었다.

"저도 인간인지만 차가운 면모가 없지 않죠. '런닝맨'에서 보여드린 친근한 이미지가 사라진 사투 달라 시청자에게는 낯설게 다가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강렬한 캐릭터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마녀식당으로 오세요'를 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고, 결과에 만족해요. 제게는 공부 많이 된 드라마였어요."

처음에는 '마녀'라는 생소한 설정 때문에 "많이 해맸다"고 고백했다. "한참이나 감이 잡히지 않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은 연출자 소재현·이수현 PD였다. "인간 세상과 오래 공존한 마녀여서 인간인 듯 아닌 듯하지 않겠냐"는 말 한마디가 모든 것

민을 '딱' 깨웠다. "첫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드라마로 사전촬영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을 볼 수 없으니 '내가 잘하고 있나?' 궁금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도 저만의 스타일로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덕분에인지 주변에서 '요즘 잘 보고 있다'는 인사도 많이 듣고, OTT 환경을 경험해 즐거웠어요. 또 하나를 경험했다는 것이 제게는 큰 힘이거든요."

2001년 잡지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해 20년간 활동해온 비결도 역시 "도전하는 마음"이다. 지금까지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무대를 가리지 않으면서 "경험의 힘"을 새삼 느끼고 있다.

"벌써 데뷔 20년 차라니, 놀랍네요. 하하하! 뒤돌아보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사실 워커홀릭이에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적응하는 과정 자체에 재미를 느껴요. 그래서 항상 소처럼 새로운 현장으로 곧바로 향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일하려고 해요. 지금 달려가는 속도와 행보가 만족스러워요."

데뷔 초기와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일과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주변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고 싶다"는 송지효의 목표는 "더 넓고 큰 사람 되기"이다.

"철이 덜 들었을 때는 어린 마음에 투정도 많이 부리고, 일에 대한 소중함도 잘 몰랐죠. 순간의 감정이 앞선 적도 있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확실히 달라요. 내 결의 제작진과 동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점점 느껴가고 있어요. 이 마음 하나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으로 털털한 매력을 드러내온 송지효. 13일 막을 내린 드라마 '마녀식당으로 오세요'의 마녀 역으로 강렬함을 새로운 캐릭터로 더했다. 사진제공 | 크리에이티브그룹이앤지

연예뉴스 HOT 5

엑소 전 멤버 크리스, 성폭력 혐의 구속



크리스

그룹 엑소의 전 멤버 크리스(우이판)가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 중국에서 정식 구속됐다. 17일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검찰원은 "법에 의거해 우이판에 대한 체포를 비준(승인)했다"고 그룹 엑소의 전 멤버 크리스(우이판)가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 중국에서 정식 구속됐다. 17일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검찰원은 "법에 의거해 우이판에 대한 체포를 비준(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죄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1일 중국 공안국은 "우이판이 여러 차례 나이 어린 여성을 유인해 성관계를 했다는 인터넷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강간죄로 형사구류(체포)하고, 사건 수사 업무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크리스가 정식 기소돼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플 히어로물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내달 개봉

할리우드 마블스튜디오의 첫 아시안 히어로물 내건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이 9월1일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한다. 17일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는 "일명 '마블민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마블의 새로운 히어로 탄생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영화는 아시안 히어로 상치가 전설 '텐 링즈'의 힘으로 어둠의 세계를 지배해온 아버지와 운명적 대결을 벌이는 내용이다.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의 시무리가 상치 역을 맡았다. 량차오웨이(양조위), 량쑹충(양자정) 등 중국 스타들도 출연한다.

'여고괴담' '콜', '백벨 테스트' 통과 한국영화에



'여고괴담 여섯 번째 이야기:모교'

영화 '여고괴담 여섯 번째 이야기:모교'와 '콜' 등이 영화 속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백벨 테스트'를 통과한 한국영화로 꼽혔다. 성평등 주간(9월1~7일)을 맞아 한국영화감독조합이 17일 발표한 '백벨초이스 10'에 이를 비롯해 '69세'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남매의 여름밤' '내가 죽던 날' '다바' '빛과 철'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혼자 사는 사람들' 등이 포함됐다. 백벨 테스트는 미국 만화가 엘리슨 백벨이 1985년 영화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지수이다. 영화 속 여성 캐릭터가 최소 두 사람일 것, 여성 캐릭터가 서로 대화를 나눌 것, 내용이 남성 캐릭터에 관한 것만 아닐 것 등이 기준이다.

형제같은 황정민-류승완 감독 흥행 맞대결

'모가디슈' 244만 관객 순항 속 황정민 주연 '인질' 오늘 개봉

배우 황정민과 류승완 감독이 흥행 맞대결을 벌인다. 2010년 '부당거래' 이후 적지 않은 세월을 함께해온 두 사람이 우정의 끈으로 맺은 인연으로도 새삼 눈길을 끈다.

황정민과 류승완 감독은 '부당거래'에 이어 2015년 '베티랑', 2017년 '군함도'로 호흡을 맞췄다. 특히 '베티랑'으로는 1340만여 관객(이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불러 모으면서 커다란 성과를 냈다. '부당거래'로

다진 절묘한 화음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18일 황정민이 주연한 영화 '인질'이 개봉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경쟁의 무대에 나서게 됐다. 류승완 감독의 '모가디슈'가 7월 28일 공개돼 한창 상영 중이어서 '인질'과 흥행을 두고 승부를 겨룬다. '모가디슈'가 16일 현재까지 244만여 관객을 동원한 가운데 '인질'은 17일 오후 2시 현재 37%의 실시간 예매율로 1위에 올라 흥행을 예고했다.

특히 '인질'은 류승완 감독이 이끄는 제작사 외유내강의 작품이어서 황정민의 선택에도 눈길이 쏠린다. 황정민 감독은 연출자 필감성 감독이 쓴 '인질' 시나리오의 '재미있는



'인질' 주연 황정민

발상과 상상력"에 카메라 앞에 섰다. 영화는 황정민이 자신의 실명을 내건 캐릭터로 나서 '배우 황정민'이 겪는 납치사건을 그렸다.

이처럼 무대를 통해 우정을 다져온 황정민과 류승완 감독은 서로를 '동반자'로 여긴다. 최근 황정민은 "제작사를 비롯해 팀이 거의 가족 같다. (류승완 감독 등과)친구처럼 잘 지낸다"면서 "영화 인생의 동반자"라



'모가디슈' 감독 류승완

고 가리켰다. 인연은 류승완 감독의 동생인 배우 류승범과도 얽혀 또 다른 눈길을 모은다. 류승범이 황정민과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류승범은 지난해 5월 황정민의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부당거래'에서 함께 호흡한 황정민의 조연이 그를 이끌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투모로우바이투게더, 4세대 아이돌 대표주자 우뚝

5인조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수빈·연준·범규·태현·휴닝카이)가 '방탄소년단'의 동생이라는 별칭을 떼고 어엿한 '4세대 아이돌'의 대표주자로 우뚝 섰다. 5월31일 발표한 정규 2집 '혼돈의 장: 프리즈(FREEZE)'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5위로 진입한 뒤 9주 연속 머무는 등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대세'로 인정받은 이들이 17일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으로 영역 확장에 나선다.

3개월 만에 고속으로 컴백한 것을 보면 이들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정규 2집으로 선 주분량 70만 장을 넘긴 데 이어 이번에도 56만 장(12일 집계)을 기록하며 '하프 밀리언셀러'를 연속 달성해 정상의 자리에 성큼 다가갔다. 이를 보여주듯, 전 세계적인 프로듀서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이 앨범에 참여했다. 저스틴 비버와 위켄드 등 글로벌 아티스트의 곡을 작업한 송라이터 빌리 윌시를 비롯해 포스트 말론, 카밀라 카베요, 5 세컨즈 오브 서머, 셀레나 고메즈, 테일러 스위프트 등과 주로 일해 온 루이스 벨이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의 수장인 방시혁 대표 프로듀서가 곡 작업 도중 이타카 홀딩스의 스쿠터 브라운에게 도움을 요청해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이날 오후 리페

키지 앨범 '혼돈의 장:파이트 오어 이스케이프(FIGHT OR ESCAPE)'를 내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런 과정을 포함해 글로벌 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스쿠터 브라운이 우리 음악과 잘 어울릴 것 같아 소개해 빌리 윌시, 루이스 벨 등과 함께 했는데 너무 든든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쿠터 브라운이 방시혁 PD에게 롤링스톤스의 멤버 키스 리처드가 쓰던 기타를 선물했다"면서 "그 기타로 수록곡 세션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라고 영광스러웠다"고 밝혔다.

앨범에는 이모 팝 펑크 장르의 타이틀곡 '루저=러버'(LOSER=LOVER)와 팬들을 위한 노래 '교환일기(두붓두 와리리)' 등이 수록됐다. 타이틀곡은 세상의 시

이정연 기자 annoy@donga.com

美 '빌보드 200' 9주간 차트서 존재감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으로 영역 확장

선에 비록 '루저(LOSER)'처럼 보일지라도, 유일한 세계이자 구원자인 '너'에게는 서로를 구원하는 '러버(LOVER)'가 되고 싶은 "소년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 같은 콘셉트가 10대 멤버로 구성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인기 비결로 꼽힌다. 'Z세대의 잇(IT)보이'라는 타이틀도 괜히 붙은 게 아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정성으로 노래하고, 포래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이들은 "Z세대의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정말 우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 포래들이 공감할 만한 경험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다"며 "팬데믹 이후 10대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노래로 표현하는 등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MBC '거침없이 하이킥' 출연진 다시 뭉친다

2007년 종영한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출연자들이 다시 뭉친다. 17일 MBC는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라면서 "연말 방송을 목표로 '다큐 플렉스' 제작진이 출연자들을 섭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침없이 하이킥'에는 배우 이순재, 나문희, 박해미, 정준하 등이 출연해 20%대(닐슨코리아) 시청률을 유지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최근까지도 온라인상에서 다시보기 열풍이 부는 등 시트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엠넷 '엠카운트다운' 제작진 코로나 확진

엠넷 음악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의 제작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7일 엠넷은 "'엠카운트다운' 제작진 중 2명이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스태프와 출연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주는 프로그램을 결장하고 하이라이트 방송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은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12일 출연자들에게도 선제적 차원에서 해당 사실을 알려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권유했다"고 덧붙였다.